추밀공·충헌공 양대 추계 세사 봉행

경기 장단 하포리 현암 단소에 150여명 참제

▲ 향사 준비를 하고 있는 추밀공 단소 전경

2010년 10월 17일, 10월 셋째 일요일 정일定日의 10시에 경기 장단군(파주시 행정구역) 진동면 하포리 현암리玄巖里의 시조후 10세 추밀공파조 추밀공樞密公 휘 수평守平과 그 아들 충헌공忠憲公 휘 위 양대의 단소壇所에서 추계 세사歲事가 봉행되었다. 서울의 추밀공파종회에서는 참제원의 교통편으로 전세버스 2대를 마련하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에 대기시키고 당일 아침 8시에 떠나려고 하였으나 참제원들의 집결이 다소 늦어 이를 기다리느라 30분 쯤 더디게 출발하였다.

8시 30분 경에 광화문을 출발,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자유로를 한 시간여 달린 전세버스는 9시 30분 경에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의 전진교 남단에 도착하여 이곳 군 초소에서 민통선 출입 수속을 마치고 다시 승차하여 다리를 건너 바로 대안 산기슭에 있는 단소 입구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앞서 전진교 남단에는 개별 승용차편 등으로 원근 각처에서 도래하는 참제원들이 속속 모여들어 출입 수속을 마치고 합류하였다. 그렇게 민통선 안으로 들어와 단소 앞 계절에 도열한 참제자는 150여명에 이르렀다.

행사에 앞서 단소의 전정에서 권혁승權赫昇 종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단소의 봉분 주변과 계절·배계절의 잔디에 멧돼지가 침입하여 이를 파뒤져 손상시킨 피해가 현저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이윽고 10시 30분 경부터 본행례가 봉행되었는데 그 분방된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추밀공위
초헌관 : 권오성權五星
아헌관 : 권명주權命周
종헌관 : 권돈원權焞遠
집례 : 권태안權泰安
축관 : 권혁로權赫길
진설 : 권봉원權鳳遠
봉로 : 권병석權炳錫
봉향 : 권복순權福淳
봉작 : 권범순權範淳
전작 : 권영면權寧冕
호창呼唱 : 권정택權貞澤
사준司 : 권동원權東遠

▲충헌공위

▲ 충헌공 단소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초헌관 : 권문원權文遠
아헌관 : 권이윤權彛允
종헌관 : 권영준權榮俊
집례 : 권태안權泰安
축관 : 권혁로權赫길

진설 : 권봉원權鳳遠
봉로 : 권병석權炳錫
봉향 : 권복순權福淳
봉작 : 권범순權範淳
전작 : 권영면權寧冕
호창 : 권정택權貞澤
사준 : 권동원權東遠

행례를 필하고 나서는 계하의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 묘소 아래까지 하산하여 음복석을 베풀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날 향사는 시종 화창하게 맑은 가을 날씨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이 봉행되었으나 보다 예제와 절목에 맞는 집전을 위해서는 사전의 습의習儀 등 방안을 통해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품격을 향상토록 했으면 하는 의견도 중론이었다.

한편 종보사에서는 권정택權貞澤 편집위원이 승합차를 직접 운행하여 복야공파 방손으로 경북 예천 문중의 권평權坪씨 일행과 카나다 영주중 일시 귀국한 권덕도權悳道씨 등을 안내하여 함께 참사하였고 귀로에는 도라산 출입국사무소와 통일촌 등을 돌아보고 문산읍 임진강변의 황희黃喜 정승 유적지 반구정伴鷗亭도 관람하였다.

<사진·글 權炳逸>

화산부원군 추향 및 정기총회 열어

신임 종회장 權貞澤씨 선출

▲ 화산부원군의 향사가 봉행되고 있다

▲ 권정택 신임 회장이 취임수락 인사말을 하고 있다

10월 10일 일요일 오후 경기 장단군(현 행정구역상은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의 현암리 묘역에서 추밀공파 정헌공계 시조후 17세 화산부원군 휘 복復과 그 장자 좌랑공 온溫, 손자 부정공 욱旭 3대의 추향이 봉행되고 겸하여 화산부원군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향사는 화산부원군의 윗대 증조고 정헌공 이하 조고 밀직공, 선고 부윤공 3대의 추향이 같은 하포리의 저운동 백목곡에서 있게 되어 모든 자손이 오전에 그곳 향례 참사를 마치고 이동해 와 오후에 이곳 행사를 봉행케 된 바였다.

화산부원군 이하 3위의 향사에 분정된 각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화산부원군위
초헌 ; 권태영權泰永
아헌 : 권석만權錫萬
종헌 : 권찬옥權贊玉
집례 : 권정택權貞澤
대축 : 권태균權泰均
▲좌랑공위
초헌 : 권혜택權惠澤
아헌 : 권오철權五喆
종헌 ; 권성옥權性玉
집례 : 권남옥權南玉
대축 ; 권진기權振氣
▲부정공위
초헌 : 권찬옥權贊玉
아헌 : 권이창權홍昌
종헌 : 권영택權英澤
대축 : 권서옥權敍玉

▲ 향사 후 묘하에서 종회의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향사가 끝나고는 묘하의 너른 터에서 화산부원군종중의 정기총회가 열렸다. 금년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는 회장 이하 임원을 개선하고 종중 규약도 일부 개정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었다.

권진택權晉澤 회장이 환후로 부득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 총회는 권정택權貞澤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되어 인사말을 하고 제1 안건으로 회칙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내용은 규약 제14조 임원회의 구성 조항에서 임원의 선출 방법과 정원 등을 조정하여 고치는 것이고 토의 끝에 수정안대로 통과되었다. 다음 임원 개선 안건에 들어가서는 권남옥權南玉씨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환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권진택 회장이 권정안權貞顔 총무를 통해 차기 회장 후보로 현 부회장 권정택씨를 추천한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지파 목사공종회의 권태영權泰永 회장이, 현 회장이 차기 회장을 추천하는 것은 절차상 지명성의 혐의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하며, 권정택 부회장의 차기 회장 후보로의 추천은 자기가 하겠다고 수정 제의하였다. 이어 정읍의 서령공 문중에서 후보 1인을 추천하여 경합이 되자, 권정택 후보가 경선으로 회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의 후유증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후보 사퇴를 선언했다.

분위기를 조정하기 위한 정회가 잠시 있었고 임시의장이 두 후보와 함께 숙의하여 연령이 아래인 제2후보가 스스로 입후보를 철회하여 권정택씨의 선출이 만자일치의 합의로 선포되었다.

권정택 신임 회장은 취임을 수락하는 인사말에서 제2후보로 추천되었던 권혜택權惠澤씨를 선임 부회장으로 선출해 줄 것을 제의하여 이를 통과시켰고 2인의 감사는 현임 권태균權泰均·권석만權錫萬씨가 연임되었다. 나머지 임원은 각지파별로 적임자를 추천받아 회장이 선임하여 다음 임시총회의 인준을 받기로 하였다. 화산부원군의 자손은 대략 3만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진·글 權炳逸>